

철학사

14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모든 영역이 목적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논하는 모든 사물의 적절한 기능을 나타내는 특정한 자연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을 발전 시키기 위해 인간의 영혼과 그 적절한 기능에 대해 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 그가 '식물적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의 영양 기능과, 동물적 영혼의 감각 기능, 의식, 느낌, 그리고 물론 인간 중을 다른 모든 종과 구별하는 특징인 이성적 영혼의 이성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의 목적론에 따라 선이란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 또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성에 따른 완전한 삶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덕에 따른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덕이란 단순히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제게 안부를 물으면 저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음, 그럼 시작은 좋네요."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게 전부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좋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요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덕이란 단순히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 즉 내면의 목적, 최종 원인에 따라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잠재력, 즉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삶입니다. 따라서 미덕이라는 개념은 그런 점에서 매우 간단합니다.

덕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리티(arity)'는 우리말 '덕'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아리티는 단순히 탁월함이나 자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덕 있는 사람이란 인간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특성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삶, 삶에 담긴 인간적인 특성이죠.

인간으로서의 삶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미덕은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기. 의도. 태도.

사실, 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덕을 도덕적 성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성향이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내면의 작용이 외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덕 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면을 향하는 것, 말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입니다. 내면 지향적이라고요. 그러면 곧바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것이 올바른 기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기능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실현될까요? 바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습관과 습관 형성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확고한 마음가짐을 최근 한 책에서 '마음의 습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이해 되시죠? 마음의 습관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질문을 다룰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도덕 발달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격 발달에 관한 이야기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의 발달에 대해 말한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란 결국 여러 덕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덕 또는 악덕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인격과 덕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습관 형성이란 무엇일까요? 이성애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형성된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덕에 따른 성향이 될 수 없겠죠.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숙고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 다시 말해,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거나 그 이상의 길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기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숙고. 목적에 대한 숙고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숙고.

그리고 그러한 숙고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한다고 해서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했듯이 , 참새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결정, 반복적인 선택, 숙고에 기반한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반복해야 정신적인 습관이 됩니다. 반복적인 생각과 사려 깊은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입니다 .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형성해 온 몇 가지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었을까요? 바로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신체적 습관에도, 정신적 습관에도, 마음의 훈련을 기르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습관 형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습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 형성은 자기 절제, 혹은 자기 통제, 절제라는 미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심이 없다면 어떻게 절제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절제심을 얻으려면 절제심이 필요한데 말이죠. 악순환의 문제가 보이시죠? 그들은 그가 말하는 아크라시아, 즉 의지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끈기, 내면의 결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의지력의 약함. 그러니까 이성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나 그가 본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성애 의해 지배 받아야 한다는 거죠 . 그리고 어린 시절 교육에서는 올바른 기능적 습관이 훈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플라톤의 작품에서 날개 달린 말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욕망, 자기 의지 , 통제 할 수 없는 정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성 으로 다스 려야 합니다 .

그리고 장인 계층처럼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계층의 사람들처럼, 개인이 스스로의 이성애 의해 다스려질 만큼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면 타인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문제는 그 속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것입니다 .

이러한 숙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숙고의 목적은 극단 사이의 중용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덕이 인간 영혼의 어떤 측면 , 인격의 어떤 측면 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라면, 특정 인격적 특성은 과도하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균형이 깨지거나 , 혹은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합리적인 중용, 즉 균형을 이루는 삶의 질입니다.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 이제 그의 영혼에 대한 관점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살펴보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우리가 식물적인 영혼, 즉 식물적인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기능은 영양 섭취와 번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체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신체 건강이 좋은 것 입니다 . 그런데, 반면에 동물적인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감각적인 기능, 즉 의식적인 느낌, 정서, 욕구와 같은 욕구적 차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할 때 그가 도덕적 미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욕구 , 욕망 ,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도덕적 미덕 . 물론 이성적인 영혼도 있죠 . 사고와 언어, 예술 활동을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적절한 기능으로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 미덕. 지성의 미덕. 그리고 그는 지성의 미덕 중에서 두 가지를 구분한다.

하나는 실천적 이성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색적 지혜입니다.

알겠죠? 실용적인 이성과 사색적인 지혜. 자, 이제 감각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감정, 욕구 말이에요.

그러한 감정들은 지나치게 많거나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잉이거나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욕망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동기로,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숙고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도 바로 그 균형이죠. 예를 들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동기로,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느끼는 것 말입니다.

알겠어? 배고픔을 느끼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적절한 시기에 감정에 이끌리는 것,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 감정 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됩니다. 도덕적 미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덕목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목이 있는데, 그런 특성이 지나치면 무모함이 되고, 부족하면 비겁함이 됩니다.

관대함이라는 미덕. 사람들에게 배푸는 태도 말이죠. 결점은 인색함, 구두쇠일 겁니다.

과도함, 낭비, 함부로 쓰는 것. 이해되지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관점에서 극단 사이의 중용이란 감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합리적인 것, 정의로운 것, 사물의 올바른 질서에 대한 개념은 항상 균형과 비례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도덕적 삶에서 쾌락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몇몇 부분에서 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쾌락과 행복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행복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 즉 안녕을 의미합니다. 쾌락은 감정, 느낌에 더 가깝고,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된 시기에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쾌락의 문제점은 그것이 간헐적이고, 외부 사건에 좌우되며, 대부분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쾌락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도덕적 가치 또한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쾌락의 도덕적 가치가 다양하다면, 다른 기준으로 쾌락을 평가할 때 쾌락은 최고의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내에 나가 노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죠. 두 가지는 도덕적 가치가 다를 수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아니, 사실 그의 도덕 심리학은 쾌락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즉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맛있는 외식에 쓴 돈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다 보면, 막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즐거웠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부수적인 혜택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덕 발달이라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나머지 두 가지는 예술을 대신하는 정부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두 가지 모두 영혼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마키아벨리와 같은 인물에 이르기까지 정치 이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정부의 기능은 권력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르네상스적 관점이 형성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텔로스(목적) 라는 관점에서 정부를 바라보았고,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의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래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직역하면 '본래' 라는 뜻의 구절이 됩니다. 그리스어로는 'fousai' 라는 한 단어로, '본래'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모든 목적론이 갖는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죠. 자연 만물에는 궁극적인 원인, 즉 목적,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본성, 본질, 형태 덕분에 말이죠.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코 로빈슨 크루소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 데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18세기 개인주의 시대의 사회 철학자였습니다. 디포에 대한 비평 문헌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디포가 묘사하는 것은 염소와 신과 함께 섬에 홀로 사는 자급자족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입니다.

물론 그는 염소들을 길들여 이성의 지배 아래 두죠. 동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요. 그리고 야만인들이 식인 잔치를 벌이러 왔을 때, 그는

절대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는 만프레디를 구해내고, 그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변해서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온다. 그들은 충분히 이성적이지 않다. 그는 그들을 믿지 않는다.

영국 선원들이 오고, 사회 계약이 생기고, 그들이 더 사회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딴 섬에 홀로 고립된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존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행복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려는 것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상적인 국가는 국가의 본질과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사회란 공동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질서 잡힌 사회입니다.

이는 공동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질서 잡힌 것이죠. 네.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선을 위해 감정이 올바르게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제 말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개인을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는 공동선을 위해 제대로 질서 잡혀 있어야 하고, 거기서 플라톤과의 유사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기존의 통치 형태가 부적합하고 불공정하며 불안정하다고 여겨 거부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귀족정, 민주정, 참주정, 과두정,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철학자 왕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플라톤의 이상이 플라톤이 말한 형상의 세계, 즉 초월적인 천상계에만 존재하는 이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형상은 개별 사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며, 개별 사물은 불완전하게 형상을 현실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쟁적이고 불완전한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안적인 정치 체제, 즉 다양한 종류의 것들에 열려 있는 겁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의 이상적인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사회든 간에 가족, 교육, 경제 제도(당시 시대의 노예 제도와 교환 경제 등)가 공동선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선의 개념이 이성에 따른 온전한 삶을 의미하는 만큼, 그가 원하는 교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에 따른 온전한 삶을 위한 교양 교육, 즉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사상은 매우 명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즉 미국식 사회와 같은 형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은 어떨까요? 예술은 어떻습니까? 예술을 일종의 모방으로 보는 플라톤의 견해에서 처음이자 일시적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점은 거기서 끝납니다.

플라톤에게 있어 예술은 형상, 즉 초월적인 형상을 모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물, 심지어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물을 모방하는 예술은 현실과 이중적으로 동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은 그저 자기 자신, 즉 형상의 복제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은 형상의 모방이 아니라 삶의 모방입니다. 플라톤과 구별하기 위해 종종 번역되는 이 용어가 적절한데, 예술은 재현적이지만, 삶, 인물, 그들의 감정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흉내 내고, 표현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플라톤이 공개 강연이나 낭송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흉내 내는 것을 경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등장인물의 감정,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특정한 것 안에서만 보편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축적해 온 경험을 한데 모아, 잘 표현된 등장인물을 보고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라고 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훌륭한 예술의 진수는 바로 특정한 것 안에서 보편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예술의 한 형식인 시를 역사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시 그는 역사를 단지 개별적인 사건들을 서술하고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시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과학, 즉 이론적 사고, 보편적 원리에 기반한 사고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 비평, 예술 형식 비평, 예술 비평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좋은 드라마에 필요한 적절한 형식적 특징들을 제시하면서 감정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좋은 비극은 특히 두려움과 연민과 같은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쉽게 균형을 잃고 우리의 용기를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정화입니다. 훌륭한 비극에서는 연민과 공포가 유발되고, 비극의 결말에서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면서 감정적인 삶이 정화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잠시 동안 그러한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은 예술과 관련하여 플라톤처럼 아름다움 자체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덜 관조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정치 이론과 예술에서 그의 근본적인 형이상학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플라톤과 함께 살펴봤던 도표를 기억하시나요? 형이상학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식론은 당연히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는지는 무엇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 사상, 미학, 윤리학, 교육 이론 등 모든 것이 파생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고전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당신 차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선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데에는 선택보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이 좋은지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일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스스로 선택 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택의 자유를 더 강조합니다. 당신은 선을 아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경우 선을 아는 것이 곧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도 그런 주장이 모두 맞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시면, 물론 언젠가는 읽어보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비 오는 날 한 번쯤은 말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통해 이성으로 통치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성으로 다스리는 철학자 왕, 현명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식에는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삶에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자기 통제력을 배우고 용기를 얻어야 비로소 변증법을 배울 준비가 되는 겁니다. 변증법은 영원한 진리를 아는 데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능력에는 감정적, 도덕적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알면 자동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파이드로스 신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수레로 다락방을 톱질하고 있는데, 제멋대로인 말이 수레를 뒤집어엎어 버린다면, 당신은 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플라톤의 전체적인 관점을 고려해 보면, 선이 저절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선 한지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식이 아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플라톤이 말하는 지식은 가치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즉 초연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초연하고 객관적이며 비인격적인 인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떨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사상의 연장선이자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는 플라톤이 지녔던 초월적인 도덕적 명령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초월적인 부분을 실용화해 버린 듯하고, 도덕에 필수적인 신비주의적 측면이 빠져 있습니다.

너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줬으니까. 플라톤의 윤리학이 중세 신비주의에 자극제가 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실용주의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아. 실용주의는 그 용어를 만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정의되는 거잖아.

특히 존 듀이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는 도덕적 신념과 가치를 일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실용주의에서 목표는 항상 단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선입니다. 듀이는 본질적인 선이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수단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본질적인 선이 존재합니다.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선, 즉 지고의 선에 대한 개념은 우선 그것이 본질적으로 선해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도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듀이는 그런 생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실용주의와 신비주의의 분리를 제기하는 것은, 내재적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진정으로 보편적인 이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용주의자는 아니지만, 그에게 보편적인 이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윤리적 절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이성과 덕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은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형상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지만, 그 형상은 여전히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편자가 존재하기 위해 초월적인 보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편자만 존재 하면 됩니다. 상대적인 것의 반대가 바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아, 하지만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들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라고 말한다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구현해야 할 절대적인 미덕들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윤리는 미덕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 이론에서 삶의 절대적인 규칙들을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인 도덕적 이상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특정한 규칙들이 있지만, 목적론적 윤리라면 무엇보다도 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성경적 윤리가 바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윤리는 목적 지향적 이라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성경적 도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십계명은 어떻냐고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요점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책임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지 말아야 할 certain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용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나요? 네, 그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지하고 옹호하는 질서 있는 통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마 언급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관상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고귀한 관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관상을 관상하는 존재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관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플라톤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후대의 신비주의처럼 초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플라톤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지만, 후대의 신비주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아, 아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끔 입문 수업에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루 만에 배우는 경우, 학생들이 종종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주의자야"라고 말하는 걸 보곤 해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바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지적하기보다는 황금률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황금률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